

긴·급·진·단

약진하는 진보 진영



공병호박사

평등한 세상이라는 이상주의
지금 한국은 상류층으로 올라
가는 중산층보다 절대 빈곤층으
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훨씬더 많
다. 실업, 카드 빚 등에 의한 이
혼과 별거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전체 아동 1,157만 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00만 명 정도
가 가난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같은 수치는 날로 확대되
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앞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
될 것이다. 또한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 무엇’을 갖지 못한 다
수의 절망감과 체념의 골은 점점
깊어갈 것이다. 경제 규모를 계
속해 키워나갈 수 있다면 이들의
체념과 소외감을 어느 정도는 달
랠 수 있겠지만, 낮은 성장과 경
기 침체가 수시로 반복된다면 이
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양극화가 주로
공업구조나 지역간 불균형에 국
한되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로는 산업·기업·사람·지역
등 전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가진
자(to have)’와 갖지 못한 자
(not to have)’ 사이의 간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등
장할 것이다. 빈부격차를 이용해
대중의 환심을 사야 하는 사람들
에게 향후 10년간은 좋은 시절이
될지 모른다. 본래 인간이란 사
실을 믿는다고보다 사실이 바
라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파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적 영
향력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진보 정당이 새
로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기존
정당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더

욱 커질 전망이다.

진보가 그리는 세계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누구나 인간다
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다
운 삶을 실현할 주체는 누구인
가? 진보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들은 그 해답을 시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찾는다.
정치를 통해, 가진 자와 그 주변
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수단으
로 돈을 각축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장
악하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인생을 통해 산전수전을 경험
한 세대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런 이상주의를 믿지 않는다. 이
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몰
락을 지켜본 사람들이다. 이들
은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

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보다 훨씬 척박한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오면서 '자립' 혹은 '자립지존'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 잘 사는 사람들 집 앞에 몰려가 촉판을 벌이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세대들은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류가 아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만큼 평등한 세계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천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을 뿐 그 정신만은 높이 살 만하다고 일축해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진보가 그리는 세계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오늘날 복지 정책의 근간을 의

미하는 '최저 수준'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생각해 낸 것이다. 그는 수상이 되기 전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 시봄 라운트리의『빈곤: 도시생활 연구』와 홉슨의『빈곤 문제』를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망의 그물코(the meshes of our safety net)'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어도 결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의 대열에 서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급진주의자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사회주의 이상이 가진 혁명적인 요소에 사람들이 점점 열정을 쏟는 것을 염려했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이 사회주의 이념을 확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자 이에 맞서 사유재산권과 사기업을 옹호하는 투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가 1908년에 행한 연설을 살펴보고도 하자.

사회주의는 부유한 자를 끌어내리려 하나 자유주의(다른 이름으로, 보수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려 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파괴시키려 하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공적인 권한과 조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보호하는 효과를 꾀한다. 사회주의는 기업을 죽이려고 한다. 자유주의는 특권과 편애의 질곡으로부터 기업을 구해내려 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우선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공격하나 자유주의는 많은 대중이 적어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을 공격하나 자유주의는 독점을 공격한다.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나라 전체가 폭력적인 사회 투쟁에 휩싸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 한 사람 분의 연금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무리와 한편으로는 혁명을 부르짖는 무리를 두고 그 가운데로 가는 길을 걸을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

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념은 이 땅에서 굳건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는 게임에 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본래 재산을 갖게 되면 과격해지지 않는다. 잃을 것을 갖게 되면 온순해지게 마련이다. 반면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을 쥐는 게임에서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맹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임에서든 보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반면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단결할 수 없다. 게다가 게임의 결과로 얻은 이익은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맞붙게 되면, 이번이 없는 한 보수 진영

이 패배하게 되어 있다.

물론 진보 세력도 급진적인 사람들과 온건한 중도 노선의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좀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부유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다. 또한 진보 세력은 또다른 든든한 후원자들을 갖고 있다. 바로 1980년 이후 한국 사회에 착실하게 축적되어 온 사람들이다.

그 이름이나 목적이 무엇이건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곤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연대(solidarity)’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구호는 언제나 서민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 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자주 거론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다시 말하면 시장의 횡포에 맞서서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진보 세력이 시민단체에서만 득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들, 이른바 교수들 가운데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으로 응대하지만,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수들은 현실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특정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시국선언문 같은 형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

그뿐 아니다. 대안 언론으로 등장하는 각종 미디어들을 보면 어김없이 강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인터넷이 네티즌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되었고, 그만큼 이들이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힘은 매우 강하다.

유명한 영화인들이나 가수들도 자신의 세계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작품 속에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어느 정상급 가수가 체제와 기업, 사업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의외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시장경제를 통해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시장을 제어하는 활동에 나서는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영화인 300여 명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내기도 했는데, 그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들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곤하는데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세월과 함께 진보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사법부에도 착실하게 축적되어 왔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이들이 판결로 드러낼 자신의 세계관 역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우선 경제·정치·사회·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위한 법안들이 행정부

와 입법부의 합동 작전에 의해 속속 통과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대개 정치 원리에 충실하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점이다.

정치 원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 원리가 후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건만, 유독 우리만 좁은 한반도의 틀에 묶여 정치원리에 의해 부를 나눠 갖는 게임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선의의 프로젝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구 반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세월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선의의 프로젝트가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이들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임을 알지만 이미 자신들은 소수로 전략해 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외관상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상

으로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길밖에 없다. 세원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텐데, 역시 가장 좋은 세원은 소득이 확연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이다. 물론 '부유세'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또한 특정 목적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생길 것이다. 아무튼 평균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호는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떠날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 지향적인 사회가 당연하게 될 전형적인 문제들을 한국 사회는 떠안게 될 것이다. 🌀